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0호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이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빨간불 L1

韓·中 훈풍에 K-뷰티 기지개 현지화 공략 L2



“예측할 수 없는 회화의 매력… 일상의 작은 장면 담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여 주 용 작가

“그림을 그릴 때면 결과를 알 수 없는 랜덤박스를 앞에 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주용 작가는 회화의 매력을 이같이 표현했다. 미리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물감이 흘러내리거나 번지면서 만들어진 무늬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 그림을 완성한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그에게는 작업을 이어가는 즐거움이다.

여 작가는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있다”며 “완성된 그림을 향해 가기보다 작업 과정에서 생겨나는 변화에 따라 그림을 만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몽펠리에 미술대학(MO.CO. ESBA)에서 학사 과정을 공부하며 영상과 사진, 오브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경험했다. 여러 시도 끝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로 회화를 선택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광명시 갤러리 광명에서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를 개최하며 그동안의 작업을 선보였다.









1 여주용 작가가 경기 광명시 갤러리 광명에서 열린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에서 자신의 작품 ‘구렁이’ 앞에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경기 광명시 갤러리 광명에서 열린 여주용 작가의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 전경.
3 여주용 작가의 작품 ‘문턱’. /여주용 작가

◆프랑스 유학서 회화의 길로…태몽에서 얻은 영감

여 작가는 프랑스 유학 시절 다양한 미술 분야를 접하며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찾는 데 집중했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순간의 움직임과 시간이 작품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서 회화에 매력을 느꼈다.

그는 “여러 매체를 시도하면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물감이 번지고 붓이 지나간 자국들이 쌓여 하나의 그림이 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여 작가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는 뱀이다. 뱀이 몸을 구부리거나 움직이는 모습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지의 출발점은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태몽이다.

어머니가 들려준 태몽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등장한다. 구렁이가 허벅지 안쪽을 물었고, 놀라 바닥을 내려다보니 수많은 뱀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여 작가는 “직접 경험한 꿈이 아닌데도 실제 기억처럼 남아 있었다”며 “제가 본 장면인지,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래 기억에 남은 이야기는 그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다. 뱀의 모습뿐 아니라 몸을 구부리고 뒤엉키는 움직임도 그림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한 풍경도 작품의 소재가 된다. 작품 ‘구렁이’의 배경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라본 눈 덮인 산의 모습이 담겼다. 흰 눈과 검게 드러난 산의 모습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 인상 깊어 그림에 활용했다.

◆밑그림 없이…물감이 만든 무늬에서 그림 찾아

여 작가의 작품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완성된다. 먼저 아크릴물감과 물로 캔버스에 바탕을 만들고, 이후 오일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의 세부적인 모습을 그려 넣는다.

처음에는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 캔버스 위에 바른다. 물의 양과 물감의 농도에 따라 흘러내리거나 번지는 모습이 달라진다. 붓에 남아 있는 물감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 다른 색을 묻혀 자연스럽게 색이 섞이도록 하기도 한다.

프랑스 유학 시절 회화에 매력 느껴
어머니에게 들은 태몽, 작품으로 표현
예상하지 못한 무늬·색에서 영감 찾아
아크릴물감·오일파스텔로 작품 완성

과거의 기억과 감정 새로운 작품으로
프랑스서 그린 작품에 새 형태 덧입혀
첫 개인전서 설명 없이 자유 해석 유도
일상 속 사소한 장면 꾸준히 기록할 것

이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대로 조절하지 않는다. 물감이 흘러내리는 방향이나 색이 섞이는 모습을 그대로 살려 예상하지 못한 무늬가 만들어지도록 한다. 여 작가는 “제가 직접 만들어낸 자국과 우연히 생긴 자국이 함께 쌓인다”며 “물감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바탕 작업이 끝나면 캔버스를 오랫동안 바라본다. 처음에는 얼룩이나 선처럼 보이던 부분에서 특정한 모습이 떠오르면 오일파스텔로 그 윤곽을 따라 그리거나 서로 연결한다.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무늬 속에서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여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보다 작업을 마친 뒤에야 제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색과 형태의 균형이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만큼 그림이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거친 부분과 정교한 부분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그림 전체가 단조로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기억, 그림으로…과거와 현재가 만난 ‘문턱’

여 작가의 작품에는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생각이 함께 담겨 있다. 어린 시절부터 기록해온 일기와 그림을 새로운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써왔다. 글뿐 아니라 그날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낙서와 그림으로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시간이 지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니 여러 그림을 모아놓은 책처럼 느껴졌고, 이후 별도의 드로잉북을 마련해 그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드로잉북에는 일상에서 떠오른 이미지들이 쌓여 있다. 비슷한 그림이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여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기 전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며 작업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는 “드로잉 일기를 다시 보면 제가 어떤 이미지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림을 많이 그리기 위한 연습보다는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작은 크기의 그림들을 모은 ‘표피시리즈’도 이러한 작업 방식과 연결된다. 나무 패널에 아크릴물감과 오일파스텔로 그림을 그린 뒤 투명한 합성수지인 레진으로 표면을 마감한 작품들이다.

과거의 작업을 현재의 작품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문턱’이다. 여 작가가 특히 애정을 갖는 이 작품은 프랑스 유학 시절 천 위에 손으로 직접 물감을 칠하고 문지르거나 긁어내며 만든 그림에서 출발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기존 그림 위에 오일파스텔로 새로운 모습을 덧그렸다. 프랑스에서 남겼던 자국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새로운 선과 형태를 더하기도 했다. 과거에 만든 그림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현재의 작업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한 화면 안에서 과거의 흔적과 현재가 겹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다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다”며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 더욱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림에 정답은 없다”… 자유로운 해석 기대

여 작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갤러리 광명에서 첫 개인전 ‘형태 이전의 상태’를 열었다. 그동안 혼자 작업해온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아 관람객에게 선보인 첫 번째 개인전이었다.

전시 제목에는 완성된 그림보다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물감 자국이 점차 하나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전시에서는 작품 옆에 제목이나 설명을 적은 캡션을 붙이지 않았다. 관람객이 작가의 설명에 영향을 받기보다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즐기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그림의 표현 방식을 넓혀갈 계획이다. 레진 등 여러 재료를 섞어 사용하면서 그림의 표면과 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에서 발견한 작은 장면들을 꾸준히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다.

여 작가는 “꼭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재미있고 좋아서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 시선으로 오래 바라보고 기록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츠베레프 vs 알카라스, 테니스 왕중왕전 ATP 파이널스 결승 격돌 /사진 뉴시스

▲추성훈 ‘은퇴전’서 추사랑 오열…“미안 이번엔 용돈 없다”

▲트럼프 대통령, ‘약물 홈런왕’ 본즈 명예의 전당 입회 지지 검토

▲‘레미제라블’ 실존 모델 서사…뮤지컬 ‘비도크’ 내달 개막

▲청년 음악가 11인이 빚는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소프라노 황수미 감독

▲‘음주운전’ 고경표, ‘핑계고’ 시상식 후보…적절성 논란